특별기고

요원해져 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단상'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며칠 전 TV에서 만 4살 된 유치원생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취득했고, 10대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8억 원을 증여받아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1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기실,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문득 "불황의 그늘은 달동네부터 드리우고, 경기침체의 삭풍은 서민들 옷깃부터 파고든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는 경제력이 빈약한 서민들의 가녀린 몸체는 미풍에도 쉽게 흔들릴 정도로 경제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는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낼 집 없는 서민층의 걱정이 앞선다. 국내 주택시장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 데서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에 21.1년이 걸려 최근 2년 새 4.7년이 더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놨다. 서울은 무려 15.6년이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4.7년 늘었다. PIR이 21.1이라는 것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안쓰고 저축해도 21년 걸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조차 작금의 아파트 가격을 정확히 진단·예측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하니 심각하기 짝이 없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순 유입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서민들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는 911명의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55%를 나타내 전국 평균 26%의 두 배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에 이어 올해는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정도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 또한 심각하다. 심지어는 3.3㎡당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20년 만에 최고 분양가는 5배 이상 껑충 뛰었고, 평균 분양가도 6년 만에 2배로 올랐다.

여기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서울의 거대자금이 광주지역 주택시장으로 밀려오는 투기현상까지 가세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의 거주자가 광주에 주택을 매입한 거래량이 전월(58건)대비 무려 1천86% 폭증한 688건이나 됐다. 이는 2006년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별 최대 거래량이다. 또한 아파트 값 상승 원인이 수도권의 갭 투자자들 때문이라는 말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관광버스를 대절해 광주를 찾은 서울의 투기자본이 저평가된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매입하는 '부동산 금융화'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광주시는 12월 23일까지 과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오죽하면 시가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서 점검에 나섰겠으며,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한다고 벼르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복지가 일상적으로 도외시되는 국내 사회 현실의 일면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주택정책이 주택건설 확대와 주택보급률 증대, 경기 활성화 수단 등에만 초점이 맞춰 왔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은 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광주만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총7만2,757명(4만4,212가구)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145만9,336명) 대비 약 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소유자 역시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주거복지정책 조속히 마련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만 수차례에 걸쳐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싸늘한 반응이다. 임대주택 정책은 아예 실종된 느낌마저 든다. 임대아파트야말로 내 집이 없어 이사철만 되면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최고의 수단이자 탈출구 역할을 해왔는데도 말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반부터 최저 주거기준을 제도화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등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제고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민들은 주택이 자본이득의 요소가 되는 '주거 자본주의 시대(residential capitalism)'에 절대 편승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고

'민지상정(民之常政)'의 국회가 되기를

정명수
광주관음신협 이사장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새하얀 눈처럼 마음씨가 더 없이 고와진다. 이때가 되면 나보다 어렵고 외로운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베풂과 나눔의 마음이 넘쳐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普通)의 인정(人情) 즉,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상반기에는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하반기에는 '조국사태'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파행과 굴절을 거듭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이다.

플라톤(Platon)의 '국가론'에서 트라시마코스(Tyrasymachos)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란 사회제도와 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강자의 이익으로, 통치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며, 피통치자들이 그들이 제정한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는 도덕적 평가를 통해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힘 있는 재벌과 정치인, 고급관료와 언론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률과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국회는 식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존재감도 없을뿐더러, 때로는 동물들처럼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하여 '식물국회', '무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인간과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인원인 보노보(Bonobo)와 침팬지가 있다. 보노보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침팬지와는 달리 평등을 좋아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낙천적인 성격에 경쟁보다는 협력을 좋아하는 종이다.

침팬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으로 보일 것이다. 20대 80의 법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보노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회적 공익을 확장하는 나눔과 봉사의 세계가 펼쳐진다.

걸핏하면 '식물국회', 툭하면 '동물국회'를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 진저리를 낸다.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건설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은 없고 막말로 인신공격마저 서슴지 않아 타협이 없는 침팬지 적인 사고를 개전(改悛)하고, 보노보적 사고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민생국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바라 맞이하는 '민지상정(民之常政)'의 국회가 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독자광장

겨울철 뇌혈관질환 주의하자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뇌졸중 환자는 8만329명으로 2017년도 6만2,621명에 비해 28%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만5,709명으로 전년 상반기 3만7,935건 대비 20%나 증가했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6.1%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인구수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뇌졸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공급이 차단되면서 뇌가 손상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구분된다.

현재 뇌경색과 뇌출혈 환자 모두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도 심해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질 경우 혈액 응집력이 높아져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전이 발생하며,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도 높아지면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때문에 만성질환자와 노년층은 뇌졸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 ▲느릿하고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고 상대방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사물의 모습이 흐릿해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 ▲갑자기 입술 한쪽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는 경우 ▲자꾸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뇌졸중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9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고령자들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금연, 운동, 식생활 개선, 적절한 운동, 정기적 검진 등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성소방서 구급대원 신숙희

사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먼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잇단 일탈행위가 입살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남도의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인정사정없이' 자른 반면 일부 도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예결위로 넘겼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이 그것으로, 당초 요구액 17억7,156만원을 36억6,087만원으로 무려 두배 이상 증액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한 민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3배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내년부터 첫 도입에 들어가는 경남도 6만원(0~2세반), 울산시 3만원(만 0세반)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문제는 예산 증액 폭이 지나치게 큰 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어린이집 지원액을 증액한 보건복지환경위에 부인이 도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의원의 부인은 현재 순천지역에서 대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특정 의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오히려 도민 혈세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전남도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광주 '노후 디젤' 시내버스 전면 교체해야

광주 시내버스의 상당수가 '노후 디젤'버스로, 소음은 물론 공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브레이크 마찰음이 나는 등 이용객들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는 노후버스의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999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33만여명으로, 올 한 해 이용객수는 1억2,900명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와 버스업체의 '시민편의'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수많은 혈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9년 이상~11년 된 노후버스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9년에서 최장 11년까지의 노후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버스 상태는 어떤지, 폐차 직전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회차지를 돌며 에어컨이나 히터 작동 시 악취, 타이어 불량 여부 등 그저 육안 확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엔진상태나 차량 정비 등은 모두 업체에 맡겨 놓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노후버스로 인한 소음공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내버스는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해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 같은 시민편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차제에 광주시는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디젤 시내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차로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기자수첩

고광민
사회부 차장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식중독 일종인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서 전염성이 강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급식소 등에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완도 A초교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원아 등 28명이 집단 구토·두통·설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아이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생 3명과 유치원생 5명 등 모두 8명의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확진 판정을 내렸다.

다행히 학교 내 급식이나 음용수 등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더 이상 피해는 없었다. 보건당국 감염경로 추적 결과, 개별 학생이 외부 바이러스에 노출돼 전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신속히 추가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 및 격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최근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병·의원에도 바이러스성 장염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른다. 실제 광주 북구 한 내과병·의원은 바이러스성 장염 증세를 호소한 환자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내원해 하루 평균 4~5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환자 대부분은 설사와 탈수·구토·오한·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환자 연령대는 60~70대 고령의 노인들부터 8세 이하 아이들 그리고 30~40대 젊은 층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감염환자 등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기승을 부리고, 겨울철 전체 장염환자 중 80%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지 24~48시간 후에 설사·구토·복통·근육통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 경우 심한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책은 가급적 패류는 날로 섭취하지 말고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음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출 후 손 씻기 등 예방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TEL (062) 720-1050~54
사회부 (062) 720-1050~54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6633-8826
사회2부 (062) 720-1043~45	월간국 (062) 720-1006~07	•FAX (062) 720-1080~82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E-mail jndn@chol.com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매국 (062) 720-1098	광고문의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업국 (062) 720-1011	•TEL (062) 720-1016~1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